



“니 덕분이야”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셀틱의 차두리(오른쪽)와 기성용이 퍼스 맥다이어미드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 존스톤과의 경기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자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시즌 6호 골

셀틱, 존스톤에 2-0 승리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는 미드필더 기성용이 시즌 6호 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퍼스의 맥다이어미드 파크에서 열린 2011-2012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세인트 존스톤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 후반 19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우측에서 올라온 제임스 포레스트의 크로스를 받은 기성용은 페널티 지역 정면 약 11m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흔들었다. 10월23일 에버턴과의 홈 경기 이후 약 2개월 만에 골맛을 본 기성용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골, 유로파리그에서 1골 등 모두 6골을 기록하게 됐다. 후반 15분 캐리 후퍼의 선제 득점으로 앞

서가던 셀틱은 기성용의 골을 더해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기성용과 차두리가 나란히 선발로 출전에 둘 다 경기 끝날 때까지 뛰었다. 특히 차두리는 이날 들어 열린 4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벤치의 신뢰를 받고 있다. 14승2무3패가 된 셀틱은 승점 44점으로 선두 레인저스(15승3무1패)를 승점 4점 차로 뒤쫓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지동원과 박주영은 나란히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동원이 속한 선덜랜드는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졌다. 교체 선수 명단에 오를 지동원은 감독의 호출만 기다리다가 경기 끝났다. 아스널의 박주영은 이날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시민구단들 “K리그 승강제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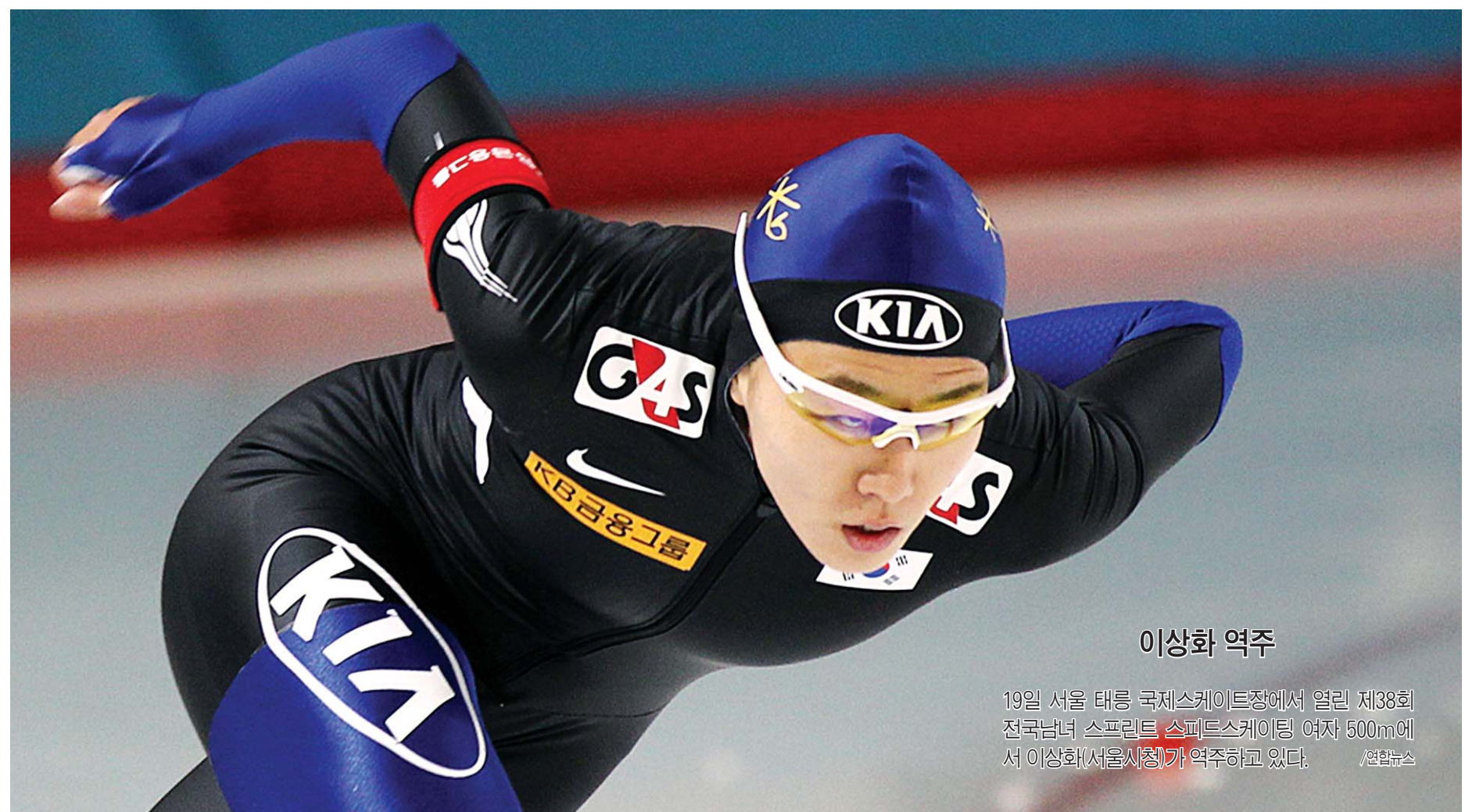
광주 FC 등 6개구단 긴급 대책회의
 “대안없이 일방 추진 땀 동참 않을 것”

K리그 6개 시·도민 구단이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승강제 도입을 반대했다. 광주·대전·대구·인천·경남·강원 대표들은 18일 대전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승강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민구단 대표들은 “연맹이 K리그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 실무자 회의를 토대로 승강제를 관철 하려고 한다”며 “대안도 없이 기업구단의 입맛에 맞춰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졸속 행정에 분개한다. 공청회 등 소통의 창구없이 밀실

추진이 계속될 경우 연맹의 어떤 사안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16개 구단 사무국장장으로 이뤄진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승강제 도입을 한국축구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도민 구단과의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소통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맹은 승강제 시행 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배포나 시·도민 구단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소통 없이 20일 4차 이사회에서 승강제를 일방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일방적인 승강제 강행이 추진되자 시·도

민구단 대표들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대표들은 승강제 도입에 앞서 ▲K리그 1·2부 리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과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 수익구조 등 구단 간 1:2부 리그간 형평에 맞는 발전 대책 마련 ▲기자채, 언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K리그 시스템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시·도민 구단이 2부 리그로 강등될 확률이 높고, 강등시 잔여기회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연맹이 일방적인 승강제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연맹이 사회를 비롯한 추후 어떤 사안에도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내년 시즌 K리그에는 승강제 실시를 위한 스플릿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플릿 시스템은 16개 구단이 올 시즌과 같이 팀당 30경기를 치른 뒤 상위 8개팀과 하위 8개 팀이 상위 리그와 하위리그로 나눠 대결을 벌이는 방식으로, 홈 앤드 어웨이로 14경기를 치러 다시 순위를 가리게 된다. 이 방식에 따라 상위 리그 1위 팀이 시즌 우승팀이 되며 하위 리그에서 강등팀 4개팀이 결정된다. 열악한 재정 환경으로 선수 수급이 요원한 시·도민 구단과 시즌 중에 선수들이 제대를 하면서 후반기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주 상무가 하위리그에 속할 전망이다. 올 시즌 시·도민 구단 중 경남이 8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신생팀 광주가 11위 대구·인천·상주·대전·강원이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서 요구하는 1부 리그 규모는 12개 팀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상화 역주

19일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38회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이상화(서울시청)가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 연봉 백지위임

오늘 한화 입단식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입단을 앞둔 ‘코리아 특급’ 박찬호(38)가 연봉 등 계약조건을 정하는 일을 구단 측에 모두 맡겼다. 한화는 이르면 20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서울에서 박찬호 입단식을 열 계획이다. 한화 구단은 19일 박찬호가 서울 모처에서 노재덕 단장, 이상근 운영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계약조건을 구단에 백지위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양측은 지난 13일 KBO 이사회가 박찬호의 한화 입단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났다. 이번 만남에서 박찬호가 뜻밖의 제안을 하면서 입단을 둘러싼 합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한양대 재학 중인 1994년 미국에 진출한 박찬호는 LA다저스를 시작으로 텍사스(2002년~2005년)-샌디에이고(2005~2006년)-뉴욕메츠(2007년)-다저스(2008년)-필라델피아(2009년)-뉴욕 양키스-피츠버그(2010년)에서 뛰었다. /연합뉴스

목포대 장동영 67점...농구대잔치 최다득점

이종희 기록 24년만에 넘어서

목포대학교 농구부의 가드 장동영(사진·24)이 역대 농구대잔치 한 경기 최다득점(67점)을 세우면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장동영은 19일 안산 올림피아드체육관에서 열린 KB금융그룹 2011 농구대잔치 남자2부 가천대와의 경기에서 3점슛 8개를 포함해 무려 67점을 퍼부어 팀의 112-58 대승을 이끌었다. 비록 경기력이 다소 떨어지는 남자2부에서 나온 것이지만 장동영의 득점은 1987년 12월 이종희(당시 현대전자)가 명지대를 상



대로 작성한 역대 농구대잔치 한 경기 최다득점(64점)을 24년 만에 넘어서는 새 기록이다. 장동영은 “기록을 세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열렬히 하지만 기쁘다”면서도 “어제 세종대와의 경기에서만큼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덕분에 좋은 기록이 나온 것 같다. 어느 프로팀이든 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라면 꼭 가서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비뒤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진지센서 - 전국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7.2인치 ⇒ 12만원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 58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 40만원
 ▶ 모비스폰투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 52만원
 ▶ 모비스폰투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만도 블랙박스 BN100

- ▶ 본인네비 매립 ⇒ 7만원 ⇒ 12만원
-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합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770B 40만원
-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 E7 37만원
- ▶ E7 17만원
- ▶ E75500 25만원
- ▶ E1 7만원
- ▶ E2620 10~14만원